

세미나
지상중계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3월 28일(월)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특강'에서 "대학에서 학점이나 스펙 쌓기에 치중한다고 성공한 리더의 자리를 보장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더는 자신의 성공을 걸고로 드러내지 않고 남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성과 덕목을 강조한 특강을 실시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2년 바이오 벤처기업인 셀트리온을 창업해 10년 만에 시가총액 4조 1,000억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주인공이다. 그런 그가 모처럼 젊은이들 앞에서 풀어놓은 리더의 조건은 단순 명료하면서도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

서 회장은 "올해 첫 CEO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게 돼 기쁘다"며 "여기에 모교 후배들에게 강연하게 돼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학교 총동창회 부회장만 12년 했다는 서 회장은 "정부가 각 대학에 제공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6조원이다. 대학은 교수들 본인인 재미있는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미래를 개척해나간다면 멋진 건국대가 될 것으로 본다"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경영이란 CEO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원과 함께 호흡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회장은 창업 초기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강연을 이끌었다. 그는 직장에 몸담았을 때 32살의 최연소임원 자리를 꿰찰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창업 이후 여러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벼랑 끝에 몰린 순간 서 회장은 주변을 두루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고 한다. 한때 매일같이 야단만 쳤던 회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건네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내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솔선수범하며 위기를 헤쳐나가고 조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 받는 리더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서 회장은 최근 대학사회가 인성 교육보다는 취업을 위한 ‘사관학교’로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전공 수업과 학과 점수도 중요하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과연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부터 돌아보라”며 “대인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절대 리더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며 사실상 백수가 됐던 서 회장. 그가 함께 근무하던 임직원들과 설립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넥솔바이오텍이다. 그는 사업 구상을 위해 무작정 방문했던 샌프란시스코의 바이오벨리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에 눈을 떴다. 그는 “2001년에 샌프란시스코 바이오 업체들을 접하며 오는 2012년께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직감했다”며 “헬스케어시장이 기존 연구개발

(R&D) 위주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는 산업(industry)으로 변화하면 셀트리온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1세대 의약품인 효소·호르몬·성장인자·혈액제제 등의 의약품보다는 진입장벽이 높은 2세대 의약품인 단일항체 개발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며 “창업 이후 10년간은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에 착실히 대비했다”고 했다. 리더의 확고한 경영철학과 비전만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안목만큼이나 기회를 활용하는 결단력도 중요하다. 서 회장은 “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체험하기도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기 일쑤”라며 “모든 비즈니스에서 품질·가격경쟁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셀트리온의 최대 경쟁력은 남들보다 적어도 4~5년 정도 앞선 타이밍”이라며 “남들이 따라올 무렵에 우리는 이미 항체의약품과 케미컬을 접합해 양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CEO의 덕목으로 ‘건전한 경영철학’을 꼽으며 대학생들에게 ‘전공에 연연하지 말고 꿈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CEO”라며 “현상을 정확히 간파해 문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창의력과 융합력, 그리고 융통성만 있다면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